

아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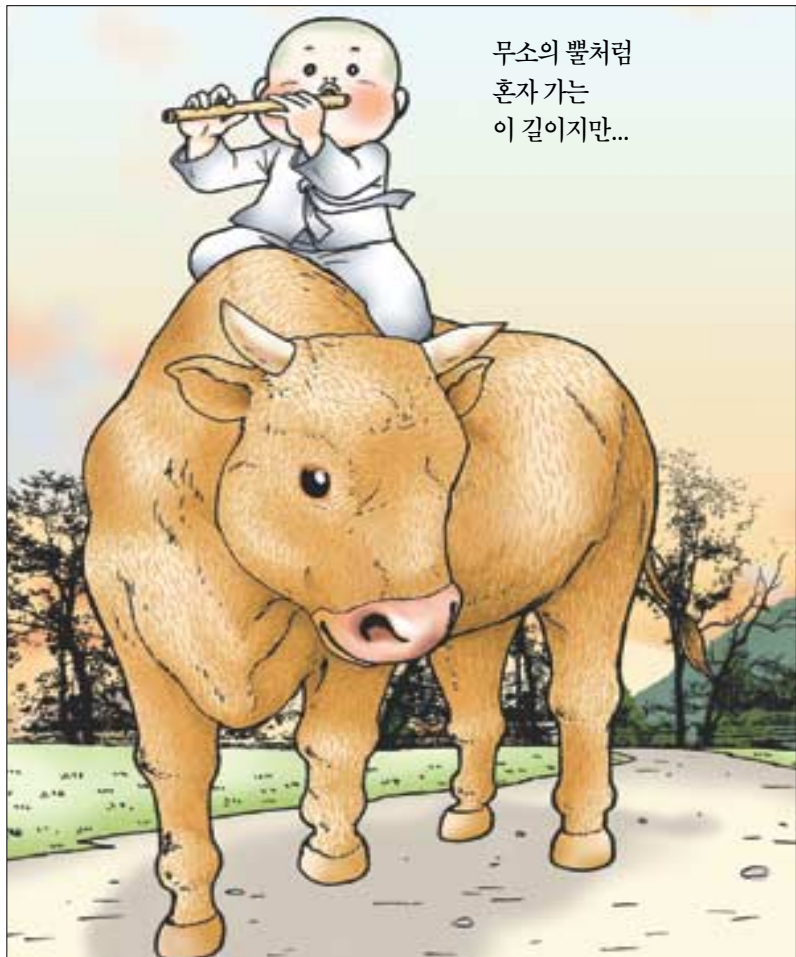
에서 건진 지혜 (제19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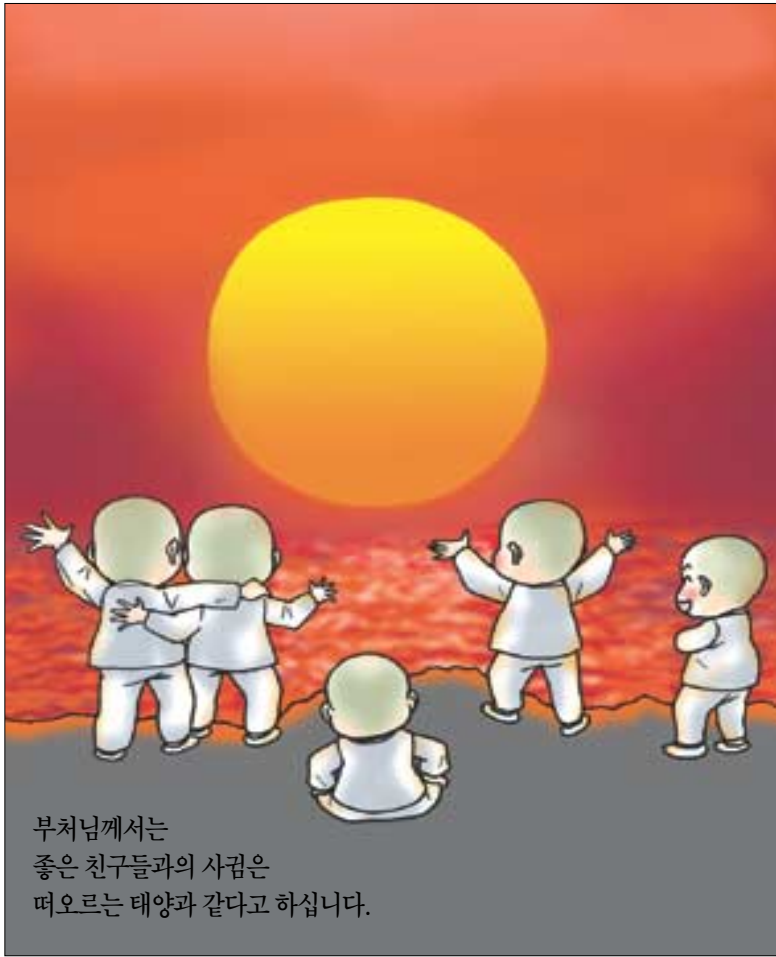
"좋은 친구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출전: 남전 상응부경전 4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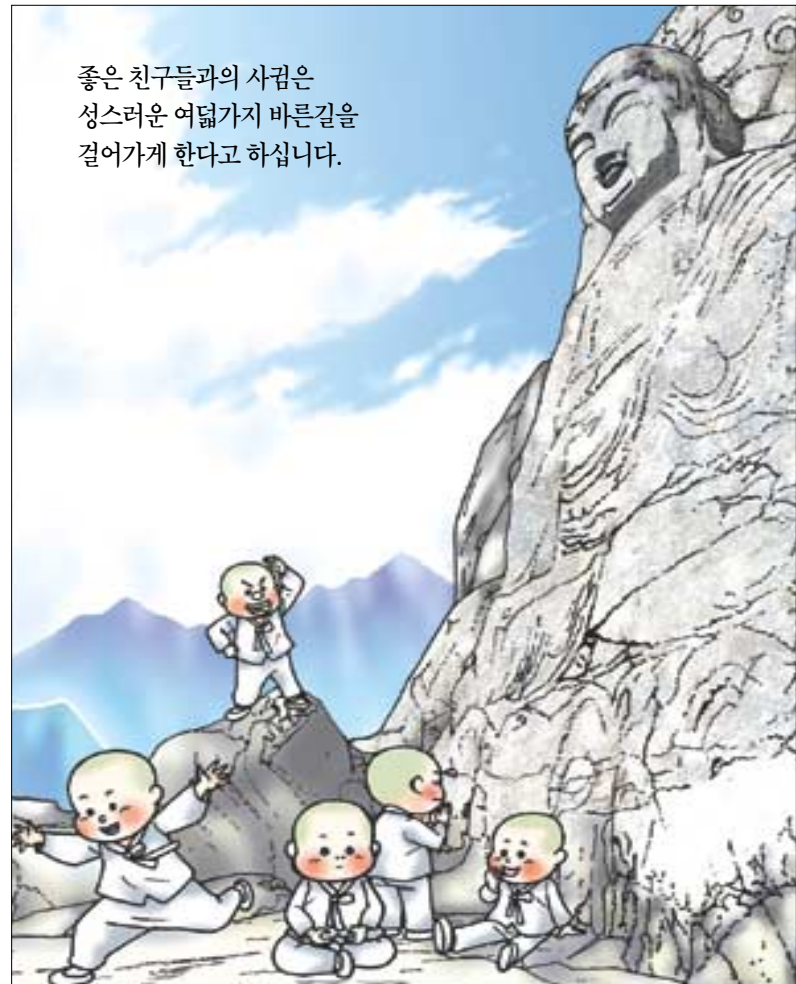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이 길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들과의 사귀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고 하십니다.



좋은 친구들과의 사귀는 성스러운 여덟가지 바른길을 걸어가게 한다고 하십니다.



나의 도반 나의 좋은 친구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들이여...



이렇게 들었다

꽃 달기

자신에게 먼저 꽃을 답시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색색의 전구와 색실이 만들어내고 부처님오신날에는 연꽃이 그런 역할을 한다. 부처님오신 날(그런데 왜 방송에서는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라고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탄신일이라고 하지?)과 어머니날이 겹친 올해는 거리마다 꽃 잔치였다. 거리엔 연꽃이, 사람들의 가슴엔 카네이션이 세상을 장엄했다. 꽃이 축하의 의미를 갖게 된 내력을 선제가 알 수는 없지만, 6가지 공양구에도 꽃이 포함되고 많은 경전에서 꽃으로 부처님을 장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불교에서 꽃이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화엄이다. 화엄이란 잡화엄식(雜華嚴飾)에서 나온 말이다. 말 그대로 갖가지의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이다. 광대무변하게 우주에 편만(遍滿)해 계시는 붓다의 만덕(萬德)을 꽃으로 장엄하여 진리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꽃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달아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는 데 있다. 화엄이라고 해서 불

국도를 장엄하는 데 그치는 것이겠는가.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부처이므로 불국도를 장엄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장엄하는 일이다. 아버이날의 카네이션 역시 스스로 꽃을 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선제는 알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리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니만큼 거리마다 피어난 연꽃의 의미도 달라야 한다고 선제는 생각한다.

조계종 전 종정인 성철스님의 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렇듯 크나큰 진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다 함께 길이길이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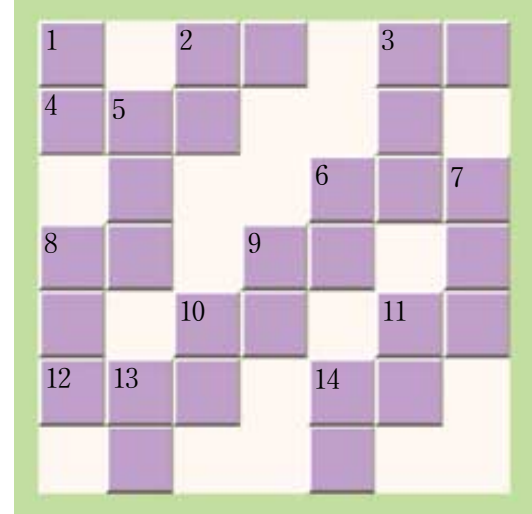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거리의 연꽃은 이미 스스로를 축하하는 꽃이고 "이 세상에 나만이 존귀하고 세상의 괴로움을 모두 평안케 하리라"는 부처님 탄신의 선언은 오늘을 사는 선제 스스로의 다짐이 된다.

■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2. 조석 예불 때 치는 북. 3. 대승불교에서 지향하는 인간상. 여자신도를 부르는 호칭으로도 사용. 4. 김동리 소설로 유명한 불상으로 육신 그대로 만든다. 6. 종립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선생님. 8. 스님이 입는 옷. 9. 공안을 생각하며 좌선을 수행하는 방법. 10. 존경하는 것. 경계(敬)와 같은 뜻. 11. 어린스님. 최근 주경중 감독이 제작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함. 12.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 14. 육바라밀의 하나. 열심히 수행하는 것.



< 420호 「교리퍼즐」 정답 >



세로

1.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로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無明)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함. 2. 부처님의 그림을 옮겨 그려서 신심을 키우는 수행방법. 3. 무엇인가를 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불교에 관하여 하도록 하는 것. 사십의 하나. 5. 강원도남한 속 초시 설악동(雪岳洞) 설악산에 있는 사찰. 중요문화재로 보물 제443호인 항상사지 삼층석탑 등이 있음. 6. 교도감화의 준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바른길로 인도한다는 뜻. 7. 절의 운영 및 사무 등을 맡아보던 승려. 8. 과거를 볼 가운데 제(6불, 현겁에 일관불이 출현한다고 하는데 그중 제3의 부처님(迦葉佛) 9. 간경(經)은 경전을 보고 읽는 것. 10. 현실세계. 정토의 반대말. 11. 어린시절 스님이 되는 것을 00출가라고 함. 13. 나라 또는 제왕의 스승. 14. 부처님의 올바른 법.

『佛心同體』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입니다

스님과 불자님의 편안한 잠자리,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건강은 헬스라이프 의료기기 침대가 책임집니다

본 제품은 들침대, 매트가 아닙니다

형스700
₩4,800,000
→ ₩3,840,000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형스600
₩2,700,000
→ ₩2,160,000

천연 원료만을 사용한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스님과 불자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헬스라이프 침대는 음전위효과, 온열효과를 동시에 느끼게 설계되어 원구루는 극미초로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또 동공연계로서는 최초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받아 통증완화와 혈액개선 효과의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생활의 삼분의 일 가량을 잠자리 시간으로 할 때, 편안한 잠자리는 건강할 허무를 위해 헬스라이프가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헬스라이프 의료기기침대
누워 주무시기만 하면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 책임보험 2억원 가입 (SAMSUNG 삼성화재)

구입문의 02-581-6011

※ 각종 은행신용카드 결제로 24개월까지 할부가능합니다.
※ 주문시 현장설치 및 1년간 무료 A/S 보장.

▶ 스텝에서는 보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실 글: ₩1,900,000 → ₩1,560,000
- 더 블: ₩3,600,000 → ₩2,880,000

○ 의장등록 제0304137호
○ 품목허가번호 제03-272호
○ 벤처기업확인 제021627032-2-5232호
○ 제조업허가 제937호
○ KS A 9002:1998/ISO 9002:1994 인증

지사 및 대리점모집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7-6
TEL: (02) 581-6011 ~ 3
공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신리 272